

# 외부 원고

조혈모세포 기증자 모임 징검다리 회장 노봉수

## 나눌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며...



유학을 위해 미국에 처음 도착하여 머무른 곳은 모텔이었다. 가격이 하도 싸서 한국에서 국제전화로 예약을 하고 갔지만 학교 교로부터 꽤 떨어져 있었고 많은 짐이 있는데다가 임신 6개월의 아내를 동반하고 있던 나로서는 어떻게 헤쳐 나아가야 할지 막막하였다. 대뜸 전화번호 책을 뒤져서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을 찾았다. 4만 명의 시골 도시 학교에 서너 명의 김씨가 눈에 띄었고 나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화를 걸어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마침 유학생 가족이 나와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방이 하나 있는 집에서 그 집 식구와 함께 3일을 지냈다. 그 동안 아파트 계약도 도와주고 전화, 은행 계좌, 필요한 도구, 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하여 주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박사 자격시험을 한번 실패하고 마지막 시험을 4일 앞둔 그 선배로서는 매우 귀한 시기에 내가 도

움을 청하였던 것이다. 만일 당시 시험에서 다시 낙방을 하면 한국으로 쫓겨날 판이었다. 그럼에도 많은 시간을 내어서 따뜻하게 배려를 하여 주었던 것이다. 후에 집사람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30여 분간 가야 하는 병원에도 수시로 데려다 주곤 하였다. 나는 너무도 많은 신세를 지은 것 같아 고마움을 표하고자 하였으나 이내 사양하시고는 후에 후배들이 오면 받은 것만큼 베풀어주면 된다고 하였다. 나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 일로 시작된 유학 생활로 나는 무척이나 내가 졸업한 대학을 좋아하게 되었다. 교수님이 우수해서도 아니요 연구 시설이 좋아서도 아니요 훌륭한 도서관이 있어서도 아니요 단지 좋은 사람을 만나 생활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학교에 대한 애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또 지속되고 있다.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귀국 직후 돈 한푼 없는 나에게 저금통장 깨서 후배 교수의 전세방 하나를 얻는 일을 도와 주셨던 은퇴한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그 교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의 교수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지금처럼 손쉽게 용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에 더욱 고마움을 느꼈고 그 교수님 또한 감사의 마음을 사양하시고 후배 교수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라는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었다. 그 분을 만날 수 있었기에 나는 지금의 직장을 사랑할 수 있었다.

조그만 나눔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지 몰라도 나에게서는 커다란 나눔이었고 그것이 내가 있었던 곳 그리고 지금 있는 이곳을 사랑하게 된 이유이다. 작년 11월 백혈병에 걸린 어린이를 위하여 골수를 기증하게 되었을 때 나는 위의 두 사람의 나눔을 잊을 수 없었다. 그 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을 일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내 몸의 일부, 조그만 부분을 내놓아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이 여간 기쁜 일이 아니었다. 유학 시절의 선배로부터 받았던 나눔, 은퇴하신 선배 교수님으로 받았던 나눔보다도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받는 것보다도 주는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다시 느끼며 주변의 이웃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지 또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